

'1970년대... 그때 그 시절 속으로'

▶ 전북연극협회 '나루터 2016'
내일까지 창작소극장서

“과거의 배경 변색 없이
시대 관통하는 맥락 존재
오늘날의 사회현상 대입”

전북연극협회(회장 정두영)는 '나루터 2016'을 오는 24일까지 창작소극장에 올린다.

나루터는 2016년(박동화 작/조민철 각색·연출)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원로예술인공연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작품으로, 특히 이번 공연에는 김기홍, 류영규, 강택수, 배수연, 이부열 등 5명의 전북연극의 최고 원로배우들이 출연하여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작품은 1970년대 사회상을 잘 반영하면서도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개인들의 삶에도 주목하고 있다. 황치수는 나루터에서 배를 짓는 사공이다. 그의 아들 규성은 서울서 대학을 나온 마을의 기대주. 하지만 규성은 기대를 저버리고 새마을운동의 전도사가 되어 마을에 돌아온다. 초가를 헐고 콘크리트 집을 짓는 것은

물론 규성은 자신을 키워준 모태이기도 한 나루터를 없애고 다리를 놓자고 한다. 이 사이에 황치수와 견원지간인 최찬봉이 다리 건설의 후원자로 등장하고 그의 딸 혜숙과 규성의 사랑이 새로운 갈등요소로 등장한다. 결국 다리는 준공되고 황치수는 노를 저어 나루터를 떠난다는 내용을 그린다. 조민철 연출가는 “그 때 그 시절과 배

경을 굳이 변색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대를 관통하는 맥락이 존재하고 오늘날의 여러 현상과 사건을 대입해도 무난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공연은 과거와의 대입을 통해 단순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 뿐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다다른 결론을 도출해낼 것이다”고 말했다. 정두영 연극협회 회장은 “전북 연극계

를 태동시키고 70년대 전북 연극을 최고 전성기로 이끈 박동화 선생의 '나루터' 작품으로 관객들과 의미 있는 소통을 하게 되었다”며 “연말연시에 온고지신의 뜻을 기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티켓가격은 1만5,000원이며 공연은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8시. **문의 063-277-7440. /정해은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100만 돌파 감사 송년행사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한해 100만 관람객 방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송년 분위기에 맞춰 주말 문화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4일에는 마술쇼(문백토리 문태현), 버스킹공연(산영라이브 오산영)과 페이스페인팅(그린나래) 등을 진행한다. 군산소방서와 연계한 '산타가 된 119' 행사 진행으로 박물관 앞 쪽에 소방차, 순찰차 등이 전시되며, 또한 소방차 길터주기, 겨울철 화재예방 캠페인 등 의미 있는 행사 진행과 더불어 크리스마스 선물도 배부할 예정이다. 25일과 31일에도 마술쇼와 페이스페인팅, 버스킹공연(통기타 사랑모임 박상만)이 펼쳐진다. /군산=문정곤 기자

순창공립 섬진강미술관서 박남재화백 기획전

순창군은 22일 순창공립미술관에서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박남재화백 기획전 오픈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황숙주 순창군수, 김종섭 군의회의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온 미술인과 적성면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제2회 순창군 자연생태관광지 전국심진강사생대회 입상자 8명중 30명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특히 박남재화백에 대한 섬진강미술관 명예관광 위촉장 수여식도 진행돼 의미가 컸다. 박남재 화백은 인사를 통해 “순창으로의 귀향을 받게 준 주민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순창의 미술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공연 & 전시 ◀◀

전 세계 희귀한 절지동물 이곳에

내일부터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서 특별전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오는 24일부터 1월 22일까지 겨울 방학특설기획 '세계희귀절지동물특별전'을 연다. 이번 특별전은 지구상에서 생물종이 가장 많은 절지동물을 주제로 기획한 전시로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전 세계의 희귀한 절지동물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자연학습체험전이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 마련된 이번 특별전은 '희귀절지동물전시', '아광전갈체험', '오색오색굴체험', '곤충놀이터', '세계희귀곤충표본전시'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희귀절지동물전시'에는 코코넛크랩, 인도왕소라게, 아시아산 포레스트전갈, 타란툴라독거미, 아이언크랩 등 약 50여종 700여 마리의 절지동물이 전시되고, '세계희귀곤충표본전시'에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곤충 헤라클레스장수풍뎠이, 키톤장수풍뎠이, 뮤엘라리사슴벌레, 버드왕나비, 나뭇잎대벌레 등 전 세계희귀곤충표본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곤충놀이터는 각종 수서곤충과 수서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터치풀과 장수풍뎠이와 사슴벌레를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딱정벌레체험존, 곤충뉴스터 등이 있어 아이들의 생태놀이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전시관에는 곤충표본만들기, 토퍼리만들기, 자개거울만들기 등이 무료(현장접수)로 운영되고 호남 최초로 만들어진 씨름영상관과 호랑이라이더관, 백두대간상설전시장을 관람할 수 있다.

세계희귀절지동물특별전은 전 연령대 입장가능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휴관일 매주 월요일) 입장료는 남원시민과 7세 이하·65세 이상은 무료이며, 어른 2,000원, 어린이 1,000원, 20인 이상 단체관람시 요금할인이 주어진다.

전시관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바래봉 일원에서는 오는 12월 31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제6회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가 열리며 주요행사로 눈썰매, 얼음썰매, 눈꽃등산, 눈꽃등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올 겨울 남원은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으로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문화재단 '문화가 있는 마지막 밤에' 콘서트

28일 저녁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에서 개최

(재)전주문화재단(이사장 김승수)은 작은 콘서트 '문화가 있는 마지막 밤에'를 오는 28일 오후 7시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에서 연다.

이번 공연은 재단의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 문화예술 기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습공간을 이용하는 민간예술단체·예술가들이 무대에 오른다. 오하나색소폰(양상블), 리더스 문화예술단(댄스), D4Tap(탭댄스), 니어아트스토리(여성 K팝댄스), 전주여성합창단(합창) 총 5팀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D4Tap(탭 댄스) 대표 김희상씨는 “이번 공연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리를 마련해 준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재)전주문화재단에서는 민간공연예술단체·예술가의 연습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전주시 공연예술 진흥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전주시 동산동에 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의 063-213-2016. /정해은 기자

예술인들과 함께 새로운 문화경험 체득

전북문화재단 '크리스마스 악동들'

내일 '공동창작공간 누에'에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 이병천)은 2016 꿈다라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 '크리스마스 악동들'을 오는 24일~25일 완주(구)잠실시험장이었던 '공동창작공간 누에(nue)'에서 갖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장르의 장비와 아티스트들을 만나고, 예술 창작 참여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체득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행사에는 14~19세의 도내 청소년들로 구성된 100여명의 악동들(‘즐거는 아이들’이란 뜻)이 모여 영화·밴드음악·미디어 아트 장르의 유명 뮤지션과 함께 워크숍 및 교육시간을 갖는다.

밴드음악 프로그램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 버클리음대 출신의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인 한상원 교수를 비롯해 지역 안팎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이 참석해 음악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건넬 예정이다. 또 전문 뮤지션과 아마추어 청소년들의 즉흥연주로 진행되는 잼 파티가 열리며 이들의 연주곡은 음원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또 미디어아트 장르에선 정문성, 김진태, 정두영 연극협회 회장은 “전북 연극계



한요한, 현소영 작가와 무용가 강혜림 씨가 아이들과 함께 프로젝트댄싱·퍼포먼스·무용을 결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영화 장르에는 올해 한국영화문화제전에서 특별 상영된 영화 '아홉고개' 사람들의 이상취 감독이 초청돼 전문 배우들·청소년들이 함께 단편영화 두 편을 제작할 예정이다.

행사는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며 전북지역 꿈다라 토요문화학교 운영단체인 아이엠, 인후문화의집, 어울림, (재)완주문화재단 G3 아트플랫폼사업단이 공동 주관한다.

**문의 문화예술교육팀 063-230-7440~1. /정해은 기자

다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12월 23일>

▷쥐띠
48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진다.
60년생: 문서운이 좋으나 계약 건을 진행하거나 문서를 주고받기에 좋은 운이다.
72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어려움이 따르는 운이다.
84년생: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 주의하라.

▷소띠
49년생: 동기간의 불화로 어려움이 따르는 운이니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상책이다.
61년생: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해야 문제가 없다.
73년생: 건강에 주의를 필요운 운이다.
85년생: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진행하라.

▷호랑이띠
50년생: 어려움이 따른다면 선배나 손윗사람을 찾아가라.
62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해 힘든 일이 생긴다.
74년생: 겉으로는 화려해보이나 실속이 없을 수 있는 운으로 내실을 다지는 것이 좋겠다.
86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는 운이다.

▷토끼띠
51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마음 상할 일은 있으나 큰 해는 없다.
63년생: 일적인 능력이 올라가고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75년생: 횡재수가 들어오니 금전 거래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겠다.
87년생: 식욕이 있으니 모임을 갖거나 식사약속을 하는 것도 좋은 운이다.

▷용띠
52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실패가 따른다.
64년생: 사람들과의 화합에 좋은 운이다.
76년생: 겉으로는 서로 웃으나 속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주의하라.
88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운이다.

▷뱀띠
53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를 필요할 때이다.
65년생: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운이다.
77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일이 성사된다.
89년생: 동기간과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으니 함께 일을 진행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말띠
54년생: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한 해결이 가능한 운이니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66년생: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리지 말라.
78년생: 허나를 잃으면 둘을 얻을 수 있는 운이니 긍정적으로 행동하라.
90년생: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다.

▷양띠
55년생: 금전을 빌려주거나 부자는 좋지 않다.
67년생: 뜻밖의 귀인을 만나게 되니 어려움이 있으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79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91년생: 운이 좋지 않으니 중요한 일은 다음으로 미루라.

▷원숭이띠
56년생: 원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68년생: 평소 애만했던 사람에게 실망할 일이 생긴다.
80년생: 평소 애 베풀 덕이 복으로 돌아오는 때.
9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정신적 소모는 많고 얻는 결과는 적으니 무리하지 말아야 하는 운.

▷닭띠
57년생: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운으로 마음을 비우고 때를 기다려라.
69년생: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81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나서지 마라. 좋은 일하고 원망 듣는 격이다.
93년생: 건강에 대해 주의를 필요운 운.

▷개띠
46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시비가 따르게 된다.
58년생: 이성을 주의하지 않으면 구설수에 휘말릴 듯.
70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뒷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82년생: 크게 움직이면 후회할 일이 생기니 욕심을 버리고 작은 것에 만족하라.

▷돼지띠
47년생: 가정에 좋은 기운이 들어 온다.
59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일이 성사되고 재능 발휘가 잘 되는 때니 활동하기에 좋은 운이다.
71년생: 사소한 것에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때다.
83년생: 어려움이 따른다면 이성의 도움을 받아라.